

유아의 용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 분석 및 의사결정력의 매개효과

원명순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mediating effect of decision mak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rage and happiness in young children

Myung-Soon Won

Divis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jeong colleg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용기와 의사결정력, 행복감과 의사결정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용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의사결정력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와 G지역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5세 유아 220명(남아 112명, 여아 10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의 용기, 행복감과 의사결정력을 측정하기 위해 박찬옥, 이은영(2011)의 교사용 유아 용기 척도, 박지영(2012)의 교사용 유아 의사결정력 측정도구, 김도란(2008)의 행복감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프로그램으로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 그리고 Sobel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의 용기와 행복감, 용기와 의사결정력, 행복감과 의사결정력은 각각의 변인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의 용기는 행복감을 의미 있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즉, 용기 및 의사결정력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이 지원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courage on happines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decision mak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rage and happiness. The courage Inventory for Young Children (Park & Lee, 2011), The Children's decision making ability Scale (Park, 2012) and the happiness Questionnaire (Kim, 2008) were administered to 220 young children (112 boys, 108 girls, 5 year of ag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 sobel test using the computer program, SPSS/PC 21.0.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courage, decision making ability, and happiness. Second, courage was an important factor in predicting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nd the decision making ability had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rage and happiness.

Keywords : young children, courage, happiness, decision making ability, mediation

1. 서론

유아는 가정 및 외부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경험을 통해 긴장, 불안 등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유아가 스스로 도전하고 잘 적응하기 위한 힘

이 필요하다. 용기란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토대로 목표 성취를 위해 두려움이나 위협적인 상황을 극복하는 행동이다[1]. 용기는 특정한 상황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드러나는 것[2]이며 개인의 위협이 있지만 불확실한 결과에도 가치 있는 목표를 의도적으로

*Corresponding Author : Myung-Soon Won(Seojeong College)

Tel: +82-10-5392-5409 email: wonms@seojeong.ac.kr

Received January 5, 2017

Revised January 23, 2017

Accepted February 3, 2017

Published February 28, 2017

추구하는 행동[3]이다. 용기는 유아가 수용하는 상황에 대한 도전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능력이며, 스스로 두려운 상황에 당당하게 대응하는 태도 [4]라고 볼 수 있다. 용기는 누구나 지닌 개인적 특성이지만 사회적 요인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용기는 개인의 자기조절력, 긍정적 사고, 자아탄력성, 격려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되기도 한다[2, 5]. 유아의 용기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 사고를 바탕으로 진실성과 끈기를 보여주며,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리더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6]. 용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에 따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들의 용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며, 교육의 효과와 환경 특성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용기와 상호관련이 있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도 가치 있게 여겨진다.

한편, 유아가 행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행복의 가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고하는가에 따라 유아의 행복도는 다를 수 있다. 유아의 행복도는 가치 기준이 개인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나, 유아가 인식하는 행복을 위한 외적 조건은 가족, 건강, 돈, 교육이며 내적조건은 양보, 돕기, 감사로 나타났다[6]. 또한 유아의 기질과 자아탄력성,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유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이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행복을 예측하는 데 매개요인임을 밝히고 있다[7]. 유아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개인내적요인, 부모요인도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교육환경 요인으로 또래유능성, 기관 적응, 교사와의 관계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8, 9]. 이처럼 행복은 다양한 측면에서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높여 주관적인 만족감과 긍정적인 정서를 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유아 행복 관련 연구는 2006년 이후 급증하였으며 행복 관련 변인을 다룬 실천연구에 집중되었고, 유아의 행복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10]. 행복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수용과 적극적인 태도를 익히는 것은 유아가 다양한 상황에서 보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유아들은 놀이상황,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맺음을 하는 상황, 집중하거나 성취감을 경험하는 상황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러한 행복감을 느끼도록 배려하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하고, 유

아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기회를 경험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취감,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유아교육 관련 연구 분야에서 유아 용기에 대한 연구나 용기와 행복감의 관계를 직접 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려우나, 유사한 개념으로 용기와 리더십, 용기와 정서능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소수 이루어졌다. 부모나 교사의 지지와 격려는 유아의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유아의 정서지능과 또래 유능성이 높을수록 행복감은 높다하선하[12]. 신치호[13]의 연구에서도 가정의 분위기, 의사소통기술, 자기이해기술, 인간관계기술이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숲에서의 자유놀이나 자연친화적 교육활동도 행복감에 긍정적인 효과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15, 16]. 결국, 삶에서 유아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 행복감이 타인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며 이를 위해 개인적 역량으로서 용기가 발휘될 때 긍정심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유아는 놀이, 학습,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을 받아들이며 타인의 의견을 고려해 자신의 생각을 조절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유아 의사결정력은 추구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문제해결과 합리성을 고려해 적절한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능력이다[17]. 유아의 의사결정력은 자율성, 자아존중감, 리더십,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도 밀접한 요인임을 밝히고 있다[18, 19, 20, 21]. 유아는 의사결정의 기회가 많을수록 동기수준이 높아지고 자신에 대한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아져 행복감 역시 높아질 수 있음을 전제할 수 있다.

실제로 유아의 의사결정력과 행복감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가 없었으나 유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자기조절력, 상황분석능력, 정서활용능력, 문제대처능력, 참조적 의사소통능력이라는 하위요인들이 유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발휘되며 이는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 행복감을 예측하는 요인 중 기질, 자아탄력성, 자기이해 및 조절능력, 의사소통능력, 또래유능성 등이 중요함을 밝힌 연구[7, 9, 12, 13]들을 근거로 의사결정력이 행복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덧붙여 행복감이 높은 유아는 긍정적인 기대와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 원만한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므로[11], 이러한 과정이 결국 유아의 의사결정력의 증진과 관련되고,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이 유아의 용기와 행복감은 발달적 관점이나 사회적용 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짐에도 불구하고 유아 대상의 용기 관련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며 유아가 지닌 용기에 따른 행복감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용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하며,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이 갖는 매개효과는 어떠한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유아의 용기 증진을 도모하고, 교수학습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용기, 행복감, 의사결정력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의 용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의사결정력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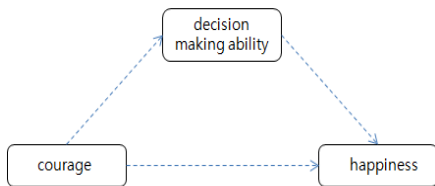


Fig. 1. The mediating effect model of decision mak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rage and happiness in young children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G와 Y 지역의 유아교육기관 5곳에 재원중인 원아 230명을 임의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유아 용기, 행복감, 의사결정력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연령에 따른 발달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만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9개 학급 유아의 담임 교사들은 3~11년의 경력 분포를 보였다. 이들에게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23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그 중에서 224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문항의 오기로 인한 불완전한 자료 4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220부(98%)를 최종 연구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성은 만 5세 유아 220명으로 다음과 같다.

2.2 연구도구

2.2.1 유아 용기 측정도구

유아 용기는 박찬옥, 이은영이 개발한 교사용 유아 용기 척도[2]로 검사하였다. 이 검사는 신체적 용기 12문항, 사회적 용기 12문항, 인지적 용기 6문항, 심리적 용기 6문항으로 4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교사 관찰을 통해 각 문항을 체크하는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다. 총 36 문항으로 이루어진 검사의 총점은 36~180점의 분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용기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신체적 용기 .67, 사회적 용기 .67, 인지적 용기 .70, 심리적 용기 .65, 전체 .84로 나타났다.

Table 1 Subarea of perspective taking ability

| Gender | N | Total |
|--------|-----|-------|
| Male | 112 | 220 |
| Female | 108 | |

2.2.2 유아 행복감 측정도구

유아의 행복감은 이정화가 개발한 아동의 행복감 척도[22]를 김도란이 수정, 보완한 검사도구[23]로 검사하였다. 이 도구의 각 하위요인은 가정환경 11문항, 자아특성 8문항, 능력 6문항, 대인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 관찰을 통해 각 문항별로 체크한다.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은 5점 평정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행복감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가정환경 .60, 자아특성 .76, 능력 .70, 대인관계 .74, 전체는 .8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2.2.3 유아 의사결정력 측정도구

유아의 의사결정력은 박지영이 개발한 유아 의사결정력 도구[17]로 검사하였다. 유아 의사결정력 검사는 5개 하위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조절력 5문항, 상황분석능력 5문항, 정서활용능력 6문항, 문제대처능력 9문항, 참조적 의사소통능력 7문항의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교사의 관찰에 의해 각 문항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모든 문항은 4점 평정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전체 점수의 범위는 32~128점의 분포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 의사결정력 검사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자기조절력 .65, 상황분석능력 .81, 정서활용능력 .83, 문제대처능력 .87, 참조적 의사소통능력 .91, 전체 .91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과학에서의 허용하는 검사도구 Cronbach α 값의 기준 수치인 .60 이상으로 나타났다.

2.3 검사 및 평정자 간 일치도

예비검사 과정에서는 본 연구대상과 무관하고 공통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각 기관 종일반 유아를 대상으로 검사도구의 양호도와 검사자 간의 일치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검사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난해점은 없었다. 그러나, 평정자 간 일치도가 요구되어 이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평정기준을 정교화 한 다음 재 평정하였다. 본 검사 과정은 연구대상 유아들의 담임교사가 평정 하였으며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2주에 걸쳐 실시되었다.

2.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PC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배경과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유아 용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의사결정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용기를 예측변인으로, 행복감을 준거변인으로, 그리고 의사결정력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이 제시한 회귀분석의 직, 간접 효과를 통한 3단계 매개효과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증을 위한 최소 유의도 수준은 $p < .05$ 로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유아 용기와 행복감 및 의사결정력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용기, 행복감, 의사결정력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연구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Table 2. General tendency of young children's courage, happiness and decision making ability (N=220)

| | M | SD | skewness | kurtosis | |
|-----------------------------|-----------------------------------|------------------|----------|----------|------|
| courage | Physical courage | 45.97 | 8.80 | -.09 | -.36 |
| | Social courage | 41.83 | 11.04 | -.08 | -.34 |
| | Cognitive courage | 18.50 | 5.83 | .06 | -.01 |
| | Psychological courage | 19.30 | 4.96 | -.14 | .91 |
| | total | 125.61 | 25.32 | -.17 | .06 |
| decision making ability | self-control ability | 14.23 | 3.30 | -.32 | .54 |
| | situation analysis ability | 16.27 | 3.48 | .00 | 1.17 |
| | emotion-application ability | 18.57 | 3.64 | -.06 | 1.95 |
| | problem-coping ability | 26.10 | 6.28 | -.01 | .47 |
| | referential communication ability | 20.32 | 5.15 | -.47 | .20 |
| | total | 95.50 | 17.88 | -.05 | 1.54 |
| | happiness | Home environment | 36.39 | 4.54 | -.22 |
| Self-characteristics | | 27.44 | 3.76 | -.22 | -.42 |
| ability | | 19.51 | 3.03 | -.12 | -.32 |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 15.77 | 3.11 | -.55 | -.91 |
| total | | 99.12 | 12.01 | -.55 | -.90 |

표 2에 의하면 유아 용기의 요인별 평균점수는 18.50~45.97, 표준편차는 4.96~11.04를 나타냈고, 왜도는 -.14~.06, 첨도는 -.36~.91의 분포를 보였다. 행복감의 요인별 평균점수는 15.77~36.39, 표준편차는 3.03~4.54로 나타났다고, 왜도는 -.55~-.12, 첨도는 -1.12~-.32의 분포를 이루었다. 또한 의사결정력의 요인별 평균점수는 14.23~26.10, 표준편차는 3.30~6.28로 나타났고, 왜도는 -.47~.00, 첨도는 .20~1.95의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 자료는 Kline이 제시한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 8의 정규성 범위 내에 분포되어 있어 정규성의 가정을 충족시킨 것[24]으로 볼 수 있다.

3.2 유아 용기와 행복감, 의사결정력 간의 관계 분석

유아 용기와 행복감, 의사결정력과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Table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peer competence of young children's courage, decision making ability and happiness

| | Home environment | Self-characteristics | ability | Interpersonal Relationships | happiness total |
|-----------------------------------|------------------|----------------------|---------|-----------------------------|-----------------|
| Physical courage | .12 | .35** | .40** | .39** | .36** |
| Social courage | .93 | .37** | .48** | .38** | .37** |
| Cognitive courage | .27** | .50** | .48** | .47** | .50** |
| Psychological courage | .34** | .52** | .59** | .54** | .58** |
| courage total | .21** | .50** | .58** | .52** | .52** |
| self-control ability | .50** | .56** | .48** | .55** | .63** |
| situation analysis ability | .20** | .51** | .59** | .50** | .51** |
| emotion-application ability | .37** | .50** | .62** | .42** | .56** |
| problem-coping ability | .28** | .60** | .67** | .49** | .59** |
| referential communication ability | .33** | .51** | .57** | .51** | .56** |
| decision making ability total | .37** | .61** | .67** | .56** | .65** |

**p<.01

표 3에서와 같이 용기와 의사결정력, 행복감의 관계는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요인별로는 용기 중 심리적 용기와 의사결정력 중 자기조절력과 행복감이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유아 행복감의 가정 환경은 심리적 용기($r = .34, p < .01$)와 의사결정력의 정서활용능력($r = .37,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아특성은 심리적 용기($r = .52, p < .01$)와 의사결정력의 문제대처능력($r = .60,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능력은 심리적 용기($r = .59, p < .01$)와 의사결정력의 문제대처능력($r = .67,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인 관계는 심리적 용기($r = .54, p < .01$)와 의사결정력의 자기조절력($r = .55, p < .01$)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3.3 유아 용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 대한 의사결정력의 매개효과

유아의 행복감에 대한 용기와 의사결정력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요인 간 다중공선성을 검증하였다. 분산팽창

지수(VIF)값은 1.00-2.78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났고, Durbin-Watson 값은 1.75-1.84로 기준치 1.5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잔차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어 서로 간에 독립성이 검증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아의 용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의사결정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Table 4. The mediating effect of decision mak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rage and happiness in young children

| | B | SE | β | t | R ² | F |
|---|------|------|---------|-----------|----------------|------------|
| courage \Rightarrow happiness | .247 | .027 | .521 | 9.007*** | .271 | 81.132*** |
| decision making ability \Rightarrow happiness | .398 | .032 | .646 | 12.482*** | .417 | 155.807*** |
| courage \Rightarrow decision making ability | .617 | .031 | .801 | 19.740*** | .641 | 389.666*** |
| courage \Rightarrow happiness | .005 | .041 | .011 | .122 | .417 | 77.559*** |
| decision making ability \Rightarrow happiness | .392 | .053 | .631 | 7.361*** | | |

***p<.001

표 4에서와 같이 용기와 행복감 간의 관계에서 의사결정력이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기는 행복감을 27.1%로 설명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81.132, p<.001$). 그리고 매개변인인 의사결정력의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이 41.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55.807, p<.001$). 독립변인인 용기와 매개변인인 의사결정력이 행복감을 설명하는데 41.7%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7.559, p<.001$). 유아 의사결정력은 용기에 더하여 행복감에 대하여 14.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가 설명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77.559,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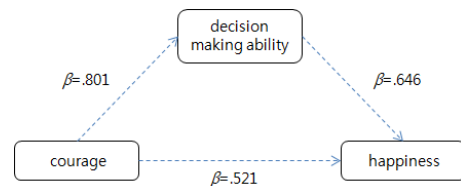


Fig. 2. The mediating effect of decision making abi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rage and happiness in young children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 투입한 결과, 독립변인의 β 값은 .521에서 .011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매개변인의 β 값도 .646에서 .63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각각 설명력의 통계적 유의성이 감소하지 않았다. 매개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z = 6.932$ ($p = .000$)로 매개효과가 $p < .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이, 유아 용기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의사결정력이 완전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를 정리하면 유아의 용기는 매개변인인 의사결정력과 종속변인인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의사결정력은 용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의사결정력은 유아 용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용기 및 의사결정력과 행복감의 관계 및 의사결정력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용기, 의사결정력, 행복감 간의 관계는 상호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용기와 행복감 전체 및 하위변인인 가정환경, 자아특성, 능력, 대인관계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용기와 의사결정력 전체 및 각 하위변인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용기와 행복감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용기가 특정한 상황에서 자기효능감, 만족지연능력, 친사회적 태도, 스트레스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와도 맥을 같이한다. 행복감은 개인의 주관적 행복지수일 수도 있지만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과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을 성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유아의 행복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놀이에 몰두하고 만족감을 느끼며 새로운 것에 용기를 내어 도전하는 것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좌절을 이겨내는 힘, 모험심, 자신감과 같은 사회적 능력은 행복감과 관련되며[25], 용기를 가진 유아가 이러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용기와 의사결정력의 관계에서는 용기가 높을수록 두려움, 좌절 등을 경험하기 이전에 자신을 조절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데 적극적임으로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으로 여길 때 행복감이 높다는 김시내[14]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실제적인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과 판단이 동기화, 인지적 자원 활용에 유용할 수 있음을 강조한 Bandura[26]도 본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목표가 내면이나 외부적인 반대로 어려움이 생겨도 이를 극복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의지와 정서적인 사고가 높을수록 의사결정력도 높게 나타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용기는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의사결정력은 용기가 행복감에 미치는 정적인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결정력은 유아 용기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통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용기와 행복감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가 행복감을 중요하게 예측해 주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이 높은 유아일수록 능동적으로 외부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춰가며 대처하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용기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용기와 행복감의 긍정적 관계를 지지하는 김미진[27], 조경서, 남기원[28]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용기를 변인으로 선정하지는 않았으나 성격 강점, 낙관성, 자아탄력성이 심리적 안녕감, 행복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수용 및 사회적 지지는 매개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힌 연구들[29, 30]이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의사결정력의 매개효과를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나 하선하[11]의 연구에서는 행복감이 높은 유아일수록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하고 맡은 일을 계획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유아의 용기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이 매개한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용기, 의사결정력,

행복감이 유의미한 상호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기는 행복감을 예측해 주는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의사결정력이 그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아가 삶을 살아가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의 용기뿐만 아니라 의사결정력을 이해하고,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발달을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용기는 개인적으로 자라온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기질,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개념 등의 발달요인의 영향과의 관계를 분석해볼 가치가 있다. 더불어 개인적 가치판단이 중요하므로 내적 사고를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행복감은 한두 가지 단편적 요인보다는 다양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아 개인 및 가정, 교육환경 변인들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분석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용기와 행복감은 성취동기 및 만족지연에 따른 변화를 보일 수 있으므로 관찰을 토대로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발달 양상과 근거를 밝히는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

- [1] E. Linda, & E. Richard, Teaching your children values. Seoul: Hanullim, 2005.
- [2] C. O. Park, & E. Y. Lee. A Study on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s Courage Scale for Teachers.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6(3), 1-21, 2011.
- [3] S. J. Lopez, & C. R. Snyder.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Seoul: Hakjisa, 2008.
- [4] R. B. Diener. The courage quotient : how science can make you braver. Seoul: Hanbitbiz, 2013.
- [5] J. S. Cogle. *An examination of courage behavioral in a laboratory sett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X, 2008.
- [6] K. H. Moon. The influence of young children's courage and happiness on leadership.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Gang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014.
- [7] S. M. Choe, M. S. Choi.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Happiness and its Variables: Temperament, Parenting Efficacy and Ego-Resilienc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4), 315-336, 2016.
- [8] M. J. Park, M. J. Kim.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er Competence, Self-esteem,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Happiness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0(1), 217-240, 2016.
- [9] J. E. Park. A preliminary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happiness among preschool children.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25(3), 76-94, 2016. DOI: <https://doi.org/10.17643/kjce.2016.25.3.05>
- [10] J. H. Shin, H. S. Choi, An analysis of trends in studies relating to early childhoo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4(1), 5-28, 2014.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4.34.1.001>
- [11] H. I. Hwang, M. J. Kim, J. H. Tak, A study of five-year-old children's happiness as measured by the cognition of being happy and the condition of happines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12(4), 93-122, 2013.
- [12] S. A. Ha. Differences in Happiness Depending upo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er Competenc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ookmyung University, 2013.
- [13] C. H. Shin. The Influence of Leadership Life Skill upon Adolescent Happines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hodang University, 2013.
- [14] S. N. Kim. The influence of the forest-experience -activities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self-esteem and creativity,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san University, 2013.
- [15] B. H. Jin. The Effect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and Sociality from the Nature-Friendly Experience of Forest,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Gwangju University, 2013.
- [16] Y. S. Hyun. The Effect of Free Play in Forest on Young Children's Happines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Incheon National University, 2014.
- [17] J.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decision making ability test for young childre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12.
- [18] E. S. Yang. The Significance of Choice in Free-Choice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3(3), 131-152, 2003.
- [19] Y. H. Jang. A problem in decision-making instruction and a significance of a model of public-mindedness, *Theory and Research in Citizenship Education*, 38(2), 137-160, 2006.
- [20] J. E. Johnson, J. F. Christie, F. Wardle. Play, development, and early education, Seoul: Academy press, 2006.
- [21] E. A. Petersen. Free-choice time is a must, *Children and Families*, 16(3), 10-12, 1997.
- [22] J. H. Lee. Development of happiness inventory for children,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Kongju University, 2005.
- [23] D. L.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Parents' Happines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Konkuk University, 2008.
- [24]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3rd ed.)*,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2011.
- [25] S. J. Park. Happy memory, Bestbaby, <http://www.smlounge.co.kr/best>.2013.
- [26] A. Bandura. *Social Foundation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 1997.
- [27] M. J. Kim. The Mediating Effect of Self-Acceptance on the Relation between Character Strengths and Happines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Myongji University, 2011.
- [28] K. S. Cho, K. W. Na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appiness and the Ego-resilience of Young Childr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5(4), 161-178, 2011.
- [29] M. J. Kim. The Effect of Optimism on Psychological Well-Being :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Social Support as a Mediating Variabl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2006.
- [30] C. S. Hyu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Regulation and Happiness,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Hongik University, 2011.

원 명 순(Myung-Soon Won)

[정회원]



- 2000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 2010년 6월 ~ 2012년 6월 : 대통령 직속 구제 개혁위원
- 2012년 3월 ~ 현재 : 사회복지법인 성애재단 대표이사
- 2013년 3월 ~ 현재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사교육, 교육평가, 아동복지